



배은주 전북대 학과장, 장학금 1000만원 기부

“대학 구성원으로서 받은 은혜와 혜택을 학생들에게 돌려 주고 싶었습니다.” 전북대학교 약학과 배은주 학과장이 후학들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6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기부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했다.

2019년부터 전북대 약학대학에 재직하며 학생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배 학과장은 “그동안 교육 여건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한솔케미칼 전주공장-적십자사, 생명나눔 협약식

한솔케미칼 전주공장 임직원들은 전북혈액원과 헌혈 생명나눔단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한솔케미칼 전직원들은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에 적극적 관심과 실천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준규 공장장 오창석 경영지원부장, 근로자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과 전북혈액원 김성근 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솔케미칼 전주공장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양기관 대표는 ‘약정서 서명, 기념촬영’ 등의 순서에 따라 협약식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도민의 생명나눔 헌혈에 적극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농어촌 집 고쳐주기 행사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응표)는 지난 7일 농어촌 취약계층을 위해 (졸표면 오묘씨 70세·중증장애인) 20여명의 직원이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다솜복지복지재단은 농어촌 집 고쳐주기 활동을 위해 농어촌지역의 무의탁 독거노인과 장애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는 것.

이번 다솜복지재단으로부터 사업비 650만원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17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주군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감사 위원 위촉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지난 7일 의정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감사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입·세출에 결산감사에 돌입했다.

결산감사 대표위원에는 황인동 의원이 위촉되었으며, 결산감사 위원은 관련 분야에 넓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직 공무원 및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감사는 7일부터 5월 1일까지 2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사회에 헌신·초등교육의 초석 다져”

전주교대 총동창회, 개교 100주년 맞아 1억원 기부

전주교육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한홍·사진) 등은 일동이 개교 100주년을 맞아 1억원을 대학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11일 전달식을 갖고 모교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모은 기금을 전할 예정이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한홍 동창회장 외에도 문홍근 전 동창회장, 김태수 수석부회장,



김왕규 군산지회장, 이영학 전주부설초 교장 등 전·현직 동문과 박병준 총장 서현석 기획처장, 주요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이한홍 동창회장은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가 문문과 대학 구성원의 자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초등교육의 초석을 다져온 그간의 노력을 대외에 널리는 중요한 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교육대학교는 1923년 5월 1일 개교해 2만 5천여명의 초등교원을 배출했다. /장은성 기자

서동해 나봄리조트 회장,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 500만원 기탁

DH그룹 나봄리조트 서동해 회장이 지난 6일 무주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500만 원을 기탁했다. 서 회장은 이날 기탁은 500만 원 고액 기부자 가운데 일곱번째 기탁하는 주인공이 됐다.

서 회장은 “청정 무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게 됐다”라며

“무주가 더욱 풍요롭고 무주군민들이 더욱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황인동 군수는 “회장의 무주에 대한 큰 애착과 관심에 감사드리다”면서 “소중한 기부금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을



하면 100%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기부금액의 130%에 달하는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또한 모금된 기부액은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군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가고 싶고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한 경우,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

민주평통 전주시협의회 ‘청소년 통일 댄스 퍼포먼스 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라북도 전주시협의회(회장 유창희)는 지난 8일 오후 5시, 전주 풍남문광장 특설무대에서 청소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댄스로 표현하는 제10회 전국 청소년 통일 댄스 퍼포먼스 대회를 개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며, 전라북도 전주시협의회는 2014년부터 청소년이 선호하는 문화콘텐츠인 댄스를 활용하여 평화와 통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청소년 평화 통일 댄스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통일표현, 작품성, 예술성, 적극성, 무대매너 등의 심사기준을 통해 전체 1등에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상 ‘대상’이 주어졌으며, 영예의 1등인 대상은 이번 통일 댄스 퍼포먼스 대회를 위해 연합해 참가한 전주 ‘무릿’ 팀이 수상, 3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무릿팀은 1991년 제4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출전한 단북 단일팀을 주제로 한 영화 ‘코리아’에 영감을 얻은 작품을



준비하면서 본인들이 코리안댄의 선수가 된 것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했다고 전했다.

대상에 이어 금상은 ‘TEAM-MENTOZ’, 은상은 ‘AOD’, 동상은 ‘COMBAT’, ‘플래시 뱅’, 장려상은 ‘그랜드’, ‘LDB’, ‘SOLIZ’, ‘블라션’, ‘SAY CREW’ 팀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포토존 행사도 진행됐고, 본 대회 전 열린 미식드 배틀대회를 통해 대회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유창희 협의회장은 “매년 진행되는 대회지만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오늘 이 대회에 모든 청소년들의 평화와 통일을 희망하는 마음이 모여져 정전의 원포가 평화통일이라는 마침표가 되기를 바라고, 이번 대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전주를 방문한 청소년들이 전통의 도시 전주를 맘껏 느끼고, 즐기고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남원 자봉센터, 찾아가는 빨래방 차량지원 실시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는 최근 김제시 백구면 내가잔마을에서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차량지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봉사자들은 이동 세탁 차량을 이용해 취약계층 가정의 이불을 수거하여 무료 세탁과 건조를 지원했다.

세탁 봉사에 참여한 봉사자는 “봄철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의 목은 이불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드라니 마음까지 상쾌해지고 보람있다”라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사회취약계층의 생활권지원을 위해 꾸준한 독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자봉센터,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차량지원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는 최근 김제시 백구면 내가잔마을에서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차량지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봉사자들은 이동 세탁 차량을 이용해 취약계층 가정의 이불을 수거하여 무료 세탁과 건조를 지원했다.

세탁 봉사에 참여한 봉사자는 “봄철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의 목은 이불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드라니 마음까지 상쾌해지고 보람있다”라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사회취약계층의 생활권지원을 위해 꾸준한 독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유예찬·이정윤 선수, 전주대에 발전기금 전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7일 대학 본관 4층 집견실에서 전북현대모터 유예찬 선수가 500만 원을, 부산아이파크 이정윤 선수가 500만 원을 축구부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경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두 선수를 대신해 양 선수의 부모님과 흥성덕 대외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유예찬·이정윤 선수는 전주대학교 축구부 소속으로 재학 당시 2021 리그 왕중왕전 우승, 제57회 춘계 대학 축구연맹전 준우승, 1·2학년 축구대회 우승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유예찬 선수는 정확한 킥력과 수비력이, 이정윤 선수는 볼 관리능력과 패싱력이 뛰어난 선수로 프로에 입단해 수비수와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다.

이정윤 선수의 부모는 “모교인 전주대학교 축구부가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예찬 선수의 부모는 “전주대학교 축구부가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흥성덕 대외부총장은 “기부금은 전주대 축구부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학 중인 학생 선수들의 지원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임종훈 고창군의원, 대한골프협회 공로패 수상

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이 지난 7일 대한골프협회 발전과 선수 및 동호인 육성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대한골프협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고창군은 2023년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석정온천 일원에서 열린 벚꽃축제에 발맞춰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제10회 고창 고인돌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했는데 임종훈 의원은 이번 대회가 고창에서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크게 공헌하였다.

임종훈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9대 고창군의회 최연소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처우개선 함께 참여되어 있는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빛원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군민 뜻에 반하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과 관련하여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을 주도했다. 더불어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환경안전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며 한빛원전과 관련한 관내 현장조사 및 시료 채취, 환경영향 분석, 그리고 한빛원전에 대한 주민인식 설문조사 등 군민의 알권리 확보와 군민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농협, '이동상담실' 운영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지난 7일 무주농협 2층 회의실에서 여성농업인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이동상담실’을 개회했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이 영농 및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소비자 분야 등의 고충을 각 분야별 전문가가 농촌 현장으로 찾아가 교육하고 상담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현장 위주의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이다.

무주농협은 이날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영현 강사를 초청해 ‘백세시대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주제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며, 아울러 문화생활강사로 NH농협생명 임재휘 강사를 초청해 ‘무주농협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을 주제로 힐링이 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강좌에 참여한 여성농업인은 “상속 법률관계 등 농업인들이 평소 잘 알기 어려운 생활법률 부분을 배우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